

2025 사순절 동부선린 일일묵상

4월 19일(토)



LENT

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여정

LENT

예레미야애가 3장 19~24절

19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

20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

21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
소망이 되었사옵은

22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
니함이니이다

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
다

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
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

하나님이 우리의 희망

칠흙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, 가시덤불에 둘러싸인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예레미야는 그가 처한 절망과 슬픔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‘나의 모든 영광은 사라졌고 주 야훼께서 바라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’(애3:18)라고 탄식합니다.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희망이 모두 사라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.

그 고통의 시간에 대한 탄식 이후에 22절에 이르러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.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입니다.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 “내가 겪은 그 고통, 쓴 쭉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.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,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. 그러나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

LENT

을 가지는 것은,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공훈이
끝이 없기 때문이다. 주님의 사랑과 공훈이 아침마다 새롭고, 주
님의 신실이 크다”(19~23절, 새번역)

고난의 시간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, 주님의 사랑과 공훈
이 아침마다 새롭고, 주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
여기서 야훼 하나님의 특징으로 알려진 ‘신실하심’은 히브리어로
‘에무나’(emunah)입니다.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는 ‘변함없는 신
뢰를 뜻하는 이 ‘에무나’가 성경이 가르치는 ‘믿음’을 대표하는
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.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
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믿음입니다. 삶의 굴곡진 여정에서 넘어
지고 상처를 입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
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. 어둠이 깊을지라도 십자가를 지심
으로 온 생명을 구원하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, 어
둠을 이기는 빛으로,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와
함께하실 것입니다.

LENT

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듯,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하시고, 눈물의 탄식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.

LENT

기도

하나님,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.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나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두눈으로 보다오르는 건강한 교회



한국기독교장로회
동부선린교회

담임목사 곽 선 근

천현성전 | 12956 하남시 하남대로654번길 22-10
새능성전 | 13025 하남시 산곡동로86번길 42
사무실 031)793-3179 팩스 031)793-3172
www.dbsunlin.com



홈페이지

www.dbsunlin.com



YouTube

동부선린교회

검색



유튜브